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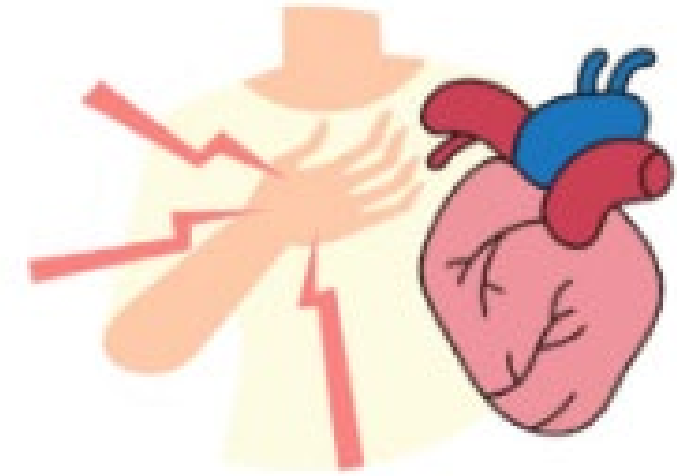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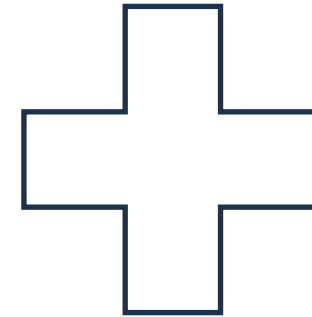
◆ 뇌심혈관계질환의 개요

1) 뇌심혈관질환이란?



뇌혈관질환

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을 일으키거나,
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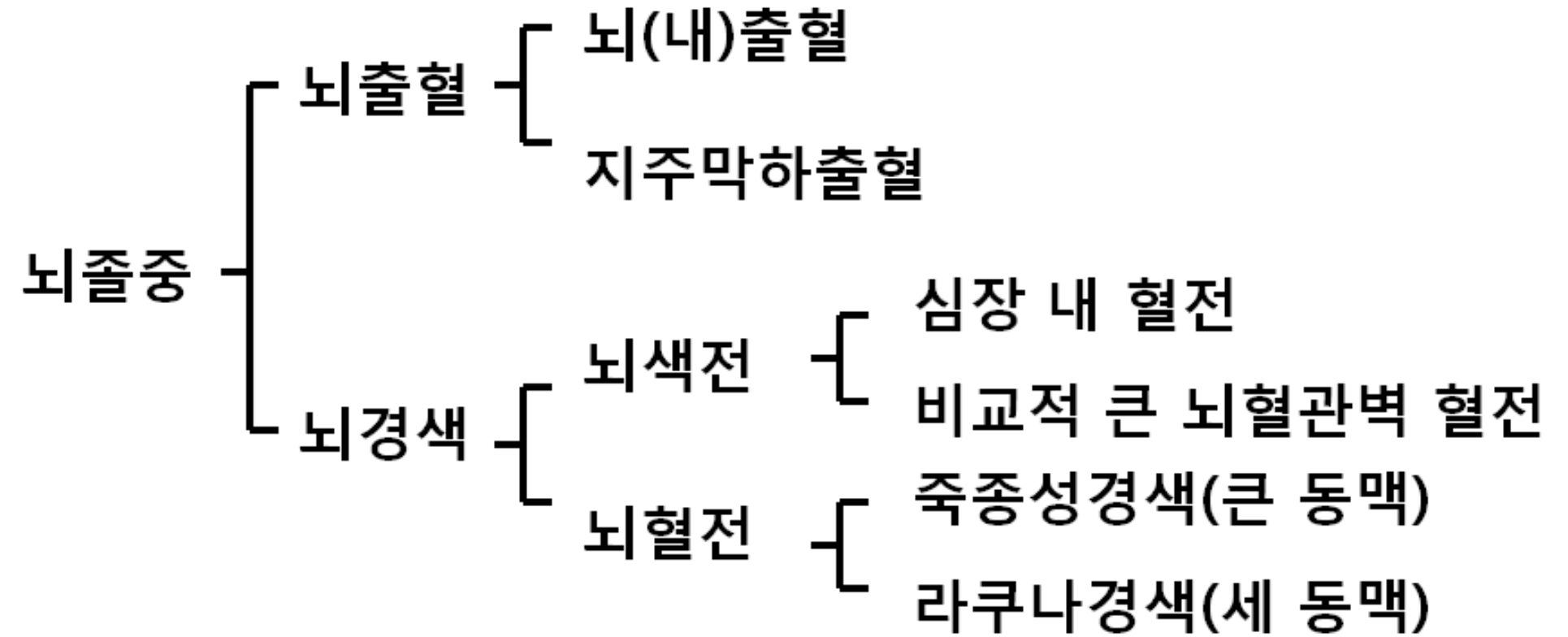


심혈관질환

심장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
좁아져 발생하는 협심증, 심근경색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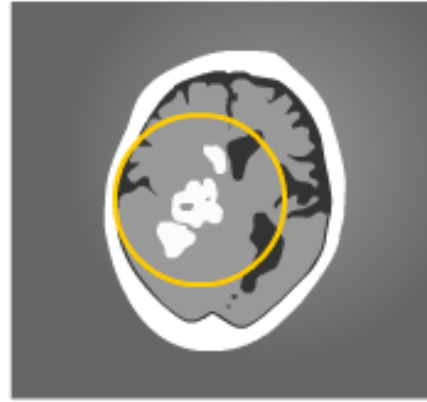
2) 뇌혈관 질환의 종류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- 뇌출혈(출혈성 뇌졸중) : 혈관이 터진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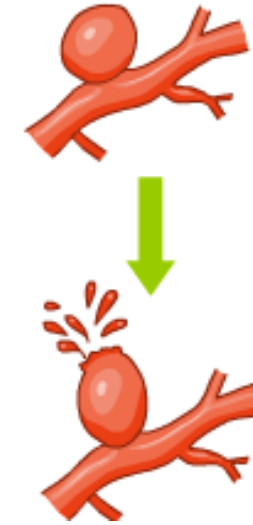
- 뇌내출혈 : 주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
- 지주막하 출혈 :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



뇌출혈 CT사진



뇌출혈



- 뇌경색(허혈성 뇌졸중) : 혈관이 막힌 상태

- 혈전성 뇌경색 : 동맥경화로 큰 뇌혈관이 막힌 경우
- 색전성 뇌경색 : 심장이나 경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은 경우
- 열공성 뇌경색 : 작은 뇌혈관이 막힌 경우



뇌경색 CT사진



뇌경색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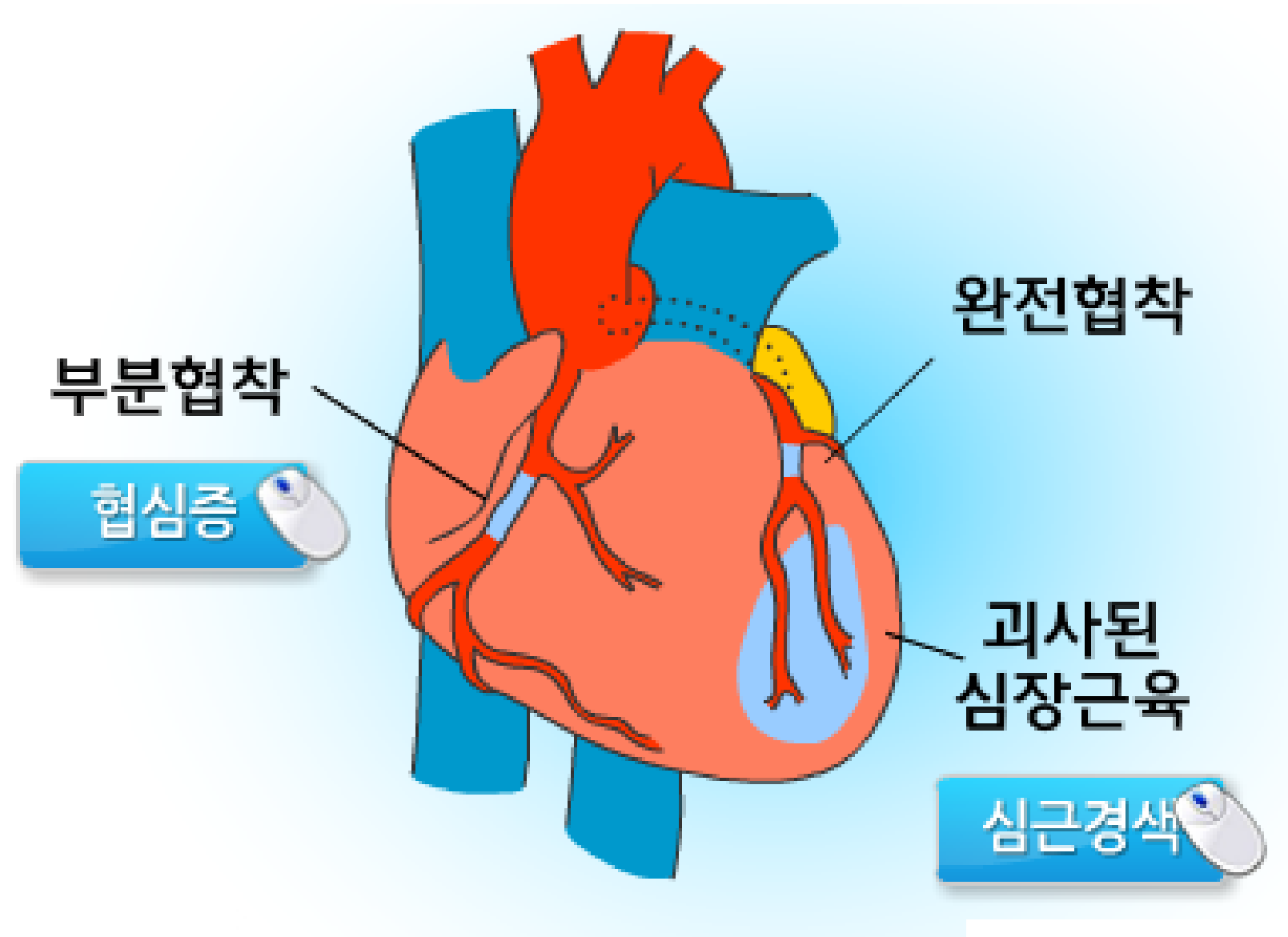
2) 뇌혈관 질환의 증상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3) 심혈관질환이란?

- 심혈관질환의 종류 : 심혈관질환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동맥(관상동맥)에 발생하는 질병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◎ 협심증

- 가슴이 죄는 듯한 느낌,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
- 호흡곤란, 화끈거림
- 2~10분 정도 지속
- 가슴중앙에서 어깨, 팔, 목, 턱 등으로 방사



◎ 심근경색

- 지속적이고 강한 흉부통증(30분 이상)
- 어지러움, 실신, 식은땀, 메스꺼움, 불안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◆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

1) 개인적(생물학적) 요인론

- 노동자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, 유전적 특성 및 노동과 무관한 개인의 생활 방식에 의해 직업병이 발생한다는 관점
- ‘중년’ ‘남성’ ‘비만’ ‘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’ 등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·유전적 특성이나 ‘흡연’ ‘운동부족’ 등 개인의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여김
- 한계
 - ◎ 국가적인 금연과 다이어트 운동을 해온 미국의 경우에 아직도 뇌·심혈관계 질환 사망이 전체 사망의 41%
 - ◎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격심하게 겪는 개발도상국에서 뇌·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고 젊은 연령에서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

2) 개별적 작업환경요인론

- 개별적 작업환경이란, 각각의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 과정 속에서 처하게 되는 생산수단이나 공정의 개별적 특징을 의미
- 근무 중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거나, 최근 업무의 급격한 변화를 겪거나, 교대근무, 과로 등을 원인으로 봄
- 따라서 개인적 요인론에 비해 작업관련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
- 한계
 - ◎ 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나, 질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3) 집단적 작업환경요인론

- 개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을 주요한 원인으로 설정함
- 노동 시간의 배치, 임금 체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나 이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장치들(법·제도 등),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사회조건의 변화 등을 포함
- 뇌심혈관계 직업병의 근본 원인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로 보는 견해
- 개별적 작업 환경에 대한 기술적·공학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왜 직업병과 재해가 줄지 않는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, 개별 노동자의 업무 뿐 아니라 <사업장 전체>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에 주목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◎ 장시간 노동(연장근무)

- 연장근무시 증상
 - 높은 스트레스
 - 신체적, 정신적 피로
 - 수면부족
- 장기 연장 근무
 - 혈압 상승의 요인



◎ 교대제 근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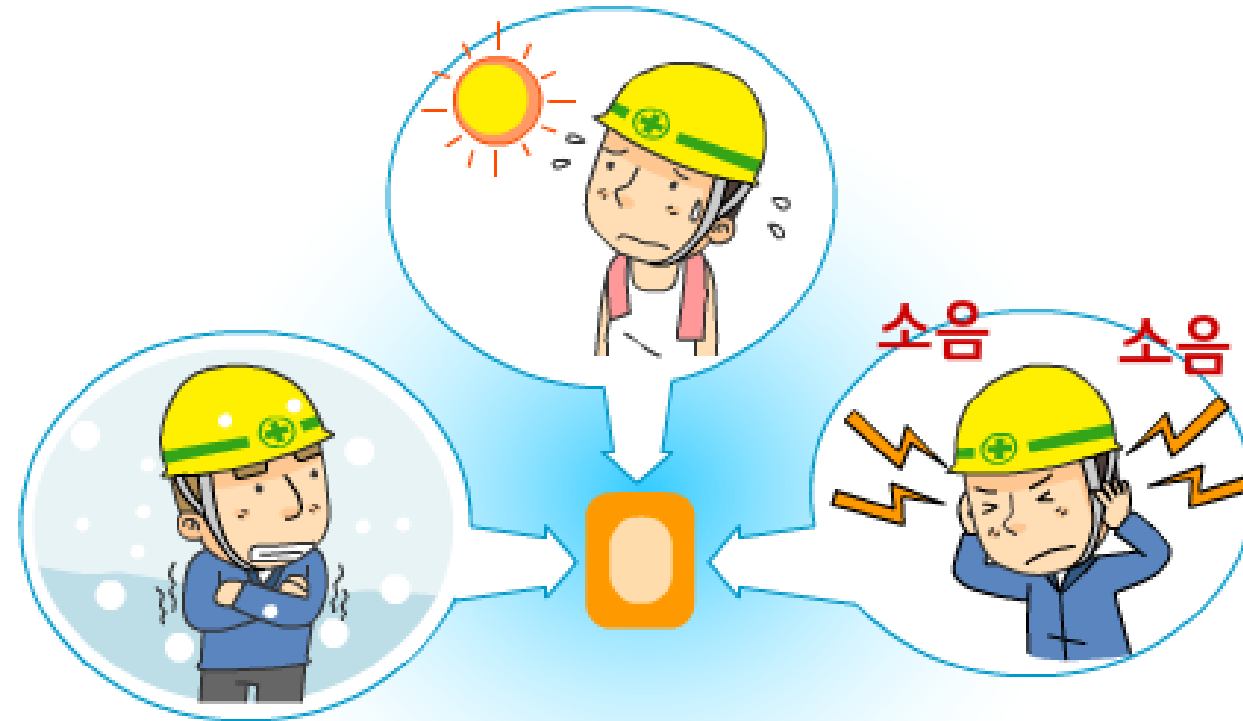
- 심혈관 질환의 요인
 - 인간리듬의 손상
 - 일상적인 생활요인에 영향
 - 직업적 스트레스 유발
- 심혈관 질환의 예방
 - 규칙적인 간격으로 순환 업무
 - 매 24시간마다 11시간 이상 휴식



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관리

◎ 기타

- 관상동맥 질환자가 열사병, 열탈진이 있을 경우 :
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위험 증가



- 한랭환경 노동자 :
심혈관 질환 발생 증가

- 소음에 장기간 노출 :
혈압상승,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